이기는 삶

홍익대통령의 모델 무히카 대통령

홍익대통령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2015년 2월 28일 퇴임한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이다.

그는 아버지가 작은 농장을 운영하다가 파산하고 무히카가 8살 때 사망하여 어린 시절부터 꽃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는 가정형편 속에서 성장하였으며 학창시절에는 무정부주의에 심취하기도 하였다. 역사와 문학 등 다방면의 독서를 좋아했으며 법학 전문학교에 진학했지만 졸업을 하지는 못했다.

청년시절 무히카는 국민당에 가입하여 청년동맹을 이끌며 사회주의 정치 노선을 걸었다. 1964년 사탕수수 노동자들의 투쟁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 8개월간 복역했고, 1960대 우루과이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게릴라 전선을 형성하고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1973년 우루과이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군부독재정치가 시작되었고, 무히카는 감옥에서 12년을 보냈으며 1985년 국제사면위원회의 도움으로 아내와 함께 석방되었다. 그후 본격적인 정치활동으로 1994년 민중참여운동을 대표하여 하원의원이 되었고 1999년 상원의원이 되었다. 2004년 총선에서 좌파연합이 승리하여 사원의원에 재선되었고 2005년 농수상업 부분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2009년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국민들에게 52%의 지지를 받아 우루과이 제 40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무히카 대통령은 취임 당시 자신의 재산으로 1,800달러(약 190만 원)를 신고했다. 또 재임 중에는 월급 1만 2,000달러(약 1,300만 원) 가운데 90% 이상을 자신이 속한 정당과 사회단체, 서민주택 건설 사업 등에 기부했다. 심지어 대통령관저를 노숙인 쉼터로 개방하고 해변 휴양도시에 있던 대통령별장을 팔아버렸다.

무히카의 대통령 생활은 리무진이 아니라 농가에서 낡은 폭스바겐 비틀을 몰고 출퇴근했다. 집에서 가사노동도 직접 했다. 그가 사는 농가와 인근 농지는 부인인 루시아 토폴란스키 상원의원의 소유다. 우루과이에는 무히카와 같은 가난한 정치인들이 많다고 한다. 영부인이자 상원 의원인 루시아 토폴란스키 여사를 비롯하여 집권당인 중도좌파연합 소속의 확대전선 의원들은 모두 월급의 50%를 기부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은 확대전선이 도시게릴라운동을 하던 1971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기부를 통해 모든 국민이 기부활동에 동참함으로써 소외된 사람들이 없는,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다는 것이다.

무히카 대통령의 재임 동안 우루과이 경제는 연평균 5% 이상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퇴임하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65%에 이른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지도자의 철학에 있다. 무히카 대통령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삶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뜻이다. 홍익(弘益)이란, 이익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익을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정치 지도자의 철학은 경제에서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이 세금이다. 주나라가 농민으로부터 수확의 9분의 1까지 세금을 거둬들인 데 반해 우리나라의 고조선 지배집단은 20분의 1만 받았다.

현재 우루과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 6,000달러 이상으로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이다. 2014년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세계 21위에 오르는 등 남미에서 가장 부패가 적은 나라다. 반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앞두고 있지만 부패인식지수는 46위로 처져 있다. 우리의 선조가 세운 고조선의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건국이념을 생각하면 낯부끄러운 일이다.

무히카 대통령과 같은 홍익지도자를 우리나라에서 또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인성보다 돈(물질)이 중심인 국민이 많을수록 그러한 정치 지도자는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다. 자신의 검소함에 대해 열광하는 사람들을 향해 "세상이 제정신이 아니다. 내가 평범하게 산다고 놀라워하는데 그런 관점이 오히려 걱정스럽다"라고 말한 무히카 대통령의 지적이 절절히 가슴에 와 닿는다.*

속담 속의 영생학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호언장담할 때 만약에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속담을 사용한다. 그런데 구세주께서는 5대공약[①세계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②한반도에 불어오는 태풍을 막겠다 ③한반도에 여름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④한반도에 계속 풍년들게 하겠다 ⑤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을 1981년도에 선포하시는 동시에 "이 사람 말대로 되지 않으면 차돌을 가지고 뒤통수를 까서 죽여라!"라고 단상에서 외쳤다. 이는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말보다 더 자신만만한 말이다.

인류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지 5년째 되던 1985년 8월 중순부터 구세주께서는 단상에 설 때마다 예배 도중에 오른팔을 힘차게 치켜들고 엄지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고르바초프 너, 레이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었다. 명령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1985년 11월 19일, 20일 양일간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이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레이건은 고르바초프에게 양국의 보좌진을 물리치고 단 둘이서 호수 주변을 산책하자고 했고, 고르바초프는 이 제의를 순순히 받아들였다. 고르바초프와 단 둘이서 회담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레이건에게 조언한 백악관 참모 마이클 디버는 두 정상의 밀담이 궁금하여 "소련 지도자에 대해 알아낸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레이건은 "그는 신을 믿더군" 거의 속삭이듯이 대답하는 것이었다.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까?"

"마이클, 잘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가 전지전능한 존재를 믿는다고 생각하네."

공산주의 체제는 어떤 종교와도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마이클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1991년 8월 20일에 고르바초프가 공산당원들한테 붙들려서 연금됐을 때, 그 다음날 구세주께서는 단상에서 "고르바초프가 곧 석방될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러자 그 이튿날 석방되어 나왔다. 고르바초프가 3일 만에 연금에서 해방되고 공산당원의 쿠데타는 실패하고 만다. 이후 소련 연방의 공화국은 해체되고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도 연이어 붕괴되고 말았다. 구세주께서 공산주의를 없애겠다고 공언(公言)한 지 꼭 십 년 만에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 차돌로 뒤통수를 맞을 빌미도 없어졌고 손에 장을 지질 일도 없게 된 것이다.*

참고은 기자

우리말 바루기

기타 표현의 오류

다음은 접속어가 어색한 경우들이다. 바르게 고쳐보자.

예1)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한다고 해서, 수사 결과를 두고 볼 일이다.

→ '해서'가 어색하기 때문에 '하므로'나 '하니'로 고쳐야 한다.

예2) 그가 오므로서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었다.

→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에는 '(-ㅁ, -음)으로써'를 써야 한다.

예3) 날씨가 너무 나쁜 관계로 여행을 떠나지 못하였다.

→ 번역투의 문장이므로 '나쁜 관계로'를 '나빠서'로 고쳐야 한다.

예4) 그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 직접 인용에 붙는 '-라고'를 간접 인용에 써서 잘못이다. 특히, 요즈음 간접 인용인데도 '-라는, -라고'를 쓰는 현상이 많은데 이는 잘못이다. 따라서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합리적이라는' 것으로 고쳐야 옳다.

예5) 한국 축구팀은 불확실한 패스웍과 수비가 불안하여 네덜란드 팀에 패배하였다.

→ 대략 뜻이 전달되지만 문장 구조에서 패배 원인으로 열거된 두 가지가 '불확실한 패스웍'은 구 구조이고 '수비가 불안하여'는 절 구조라 불균형하다. 따라서 구 구조로 통일한 '불확실한 패스웍과 불안한 수비로'로 고치거나, 절 구조로 통일한 '패스웍이 불확실하고 수비가 불안하여'로 고쳐야 문장 구조가 균형을 찾는다.

우리 말에는 쉼표 하나가 글의 의미를 명료히 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부호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다음 ①의 예는 무슨 뜻의 글인지 애매하다. 그러나 ②, ③처럼 쉼표가 어디 붙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효과가 있다.

① 바다는 불이 켜져 있으면 고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애의 양등(洋燈)과도 흡사하다. ② 바다는, 불이 켜져 있으면 고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애의 양등(洋燈)과도 흡사하다. ③ 바다는 불이 켜져 있으면, 고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애의 양등(洋燈)과도 흡사하다.*

이승우 기자

누구나 쉽게 공부 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길

내 마음속에 '나'를 이기자!

The way for achieving God's wish

Win myself in my mind.

▶ 이 길은 마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성취도 마음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생의 믿음이 있어야 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생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영생의 희망을 계속 품어야만 합니다.

This is the way of the mind. Therefore, the achievement of immortality is also done by the mind. There must be belief in immortality. Thus, in order to achieve immortality, we must keep the belief in immortality in our mind.

▶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는 마귀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 마음 속에서 영생의 희망을 없애 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귀는 계속해서 영생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But, Satan that exists with God in our mind keeps watching the mind to rob it of the belief in immortality. At this moment, Satan tries to find a chance constantly to rob the mind of immortality.

▶ 몇몇 사람들은 이긴자 구세주가 심한 육체적 연단의 고된 투쟁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육체적 연단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명백한 착각입니다. 분명하게 말해서, 이긴자 구세주는 마음과 싸우는 연단, 마음의 투쟁에서 이기신 분입니다.

Some think that the Victor Christ just had severe trials of heavy manual labor. However, Only Knowing this is the clear misunderstanding. Speaking clearly, the Victor won the struggle of the 'Mind', mind- fighting trials.

▶ 우리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의 투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 마귀를 영원히 제거해야 합니다.

We must also win the battle of 'Mind' so as to achieve immortality. Self-consciousness in our mind must be removed forever.

▶ 하나님은 이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6천년 간 홀로 역사를 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초초로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나'라는 자존심 마귀를 완전히 죽여 본 경험이 있는 이긴자 구세주님의 성령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To fulfill God Great Will, He has been working for 6000 years alone. From now on, every moment we should win myself to achieve God Great Will. This can be done only by the Holy Spirit of the Victor who has ever killed Self-consciousness of 'I'.*

by Alice

김만철 선생 탈북스토리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아서

10년 동안 철저히 준비한 탈북
식량과 자유만 있다면 다른 것은 전혀 필요가 없다
목숨을 걸고 탈출하자

인도네시아의 무인도로 가자
그곳에서 정착하기 어렵다면 파푸아뉴기니로 가자
거기도 안 되면 아마존 삼림속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아가자
아!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
엔진고장 그리고 표류
일본열도에 흘러들어간 후
극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이기신 하나님의 섭리!
조희성 선생을 만난 후에야 깨달았다

30년 만에 털어놓는 탈북 비화!!!

김만철 선생은

1987년 1월 김일성 공산정권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11식구를 몽땅 데리고 배로 탈북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후 북한사람들에게 많은 동기부여를 하였다.
탈북 후 교회를 다니면서
북한의 실상과 극적인 탈북과정을 강연하면서
강연료로 받은 돈으로
남해에 평화기도원을 세워 운영하였다.
하나님이 진실로 존재하는지 알기 위하여
신학대학원을 다니기도 하였지만
모순 투성이의 성경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더욱 의문만 생겨서 중도에 그만두었다.
승리제단 조희성 선생을 만난 후
교회 다니면서 생겼던 의문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었다.

판매처: 교보문고, 도서출판 해인(032-343-9985)